[ 주식전략팀 ] 2014년 6월 25일 수요일

# 삼성 Daily


- Daily 주요지표
- 주식시장 전망
  – 잠재적 배당 유망주를 찾아서
- 삼성 TOP 10
- TOP 10 스타일별 분류 및 트레이딩 밴드
- 삼성 TOP 10 유니버스
- 모멘텀 플레이 유망주
- 글로벌 Best 11
- 글로벌 ETF 5
- 글로벌 Peer 분석
- 수급 빅매치 – 한국전력 · 삼천당제약
- Market Indicators
- 증시 캘린더

삼성증권 SAMSUNG

# Daily 주요지표

| | 지표 | 최근값 | 전일대비 | 1일전 (%) | 5일전 (%) | 52주 고가 | 52주 저가 |
|---|---|---|---|---|---|---|---|
| 주식 | 종합주가지수 | 1,994.35 | 19.43 | 0.98 | (0.36) | 2,063.28 | 1,770.53 |
| | 거래량 (백만주) | 241.51 | 9.77 | 4.22 | 2.08 | 483.16 | 168.83 |
| | 거래대금 (십억원) | 3,552.32 | 138.72 | 4.06 | (1.99) | 6,694.45 | 2,224.80 |
| | KOSDAQ지수 | 529.49 | (0.47) | (0.09) | (1.56) | 573.88 | 478.68 |
| | 거래량 (백만주) | 272.98 | 9.17 | 3.48 | (9.30) | 570.17 | 214.72 |
| | 거래대금 (십억원) | 1,563.45 | 15.59 | 1.01 | 11.01 | 2,654.17 | 969.37 |
| 채권 | 국고채 (10년) | 3.22 | (0.02) | (0.62) | (2.63) | 3.76 | 3.21 |
| | 국고채 (3년) | 2.68 | (0.01) | (0.26) | (1.65) | 3.12 | 2.66 |
| | 회사채 (3년 AA-) | 3.11 | (0.01) | (0.19) | (1.30) | 3.48 | 3.09 |
| | CD (91일) | 2.65 | 0.00 | 0.00 | 0.00 | 2.70 | 2.65 |
| 외환시장* | 원/달러 | 1,018.40 | (0.10) | (0.01) | (0.34) | 1,161.40 | 1,015.70 |
| | 엔/달러 | 101.95 | 0.02 | (0.02) | 0.20 | 105.47 | 95.81 |
| | 달러/유로 | 1.36 | 0.00 | 0.05 | 0.46 | 1.40 | 1.28 |
| 아시아증시 | 니케이225 (일본) | 15,376.24 | 6.96 | 0.05 | 2.67 | 16,320.22 | 12,758.22 |
| | TOPIX (일본) | 1,268.50 | 1.02 | 0.08 | 2.45 | 1,308.08 | 1,065.27 |
| | 가권 (대만) | 9,246.20 | 17.85 | 0.19 | 0.06 | 9,339.83 | 7,663.23 |
| | 상해종합 (중국) | 2,033.93 | 9.57 | 0.47 | (1.59) | 2,270.27 | 1,849.65 |
| | 심천종합 (중국) | 1,068.50 | 7.24 | 0.68 | (0.68) | 1,162.05 | 815.89 |
| | 항셍 (홍콩) | 22,880.64 | 75.83 | 0.33 | (1.39) | 24,111.55 | 19,426.36 |
| | H주 (홍콩) | 10,250.16 | 52.06 | 0.51 | (2.07) | 11,638.27 | 8,640.85 |

참고: * 전일 17시 30분 기준

**김용구**
ygno.1.kim@samsung.com
02 2020 7047

# 주식시장 전망
# 잠재적 배당 유망주를 찾아서

## 정책변화 기대에 배당투자에 대한 관심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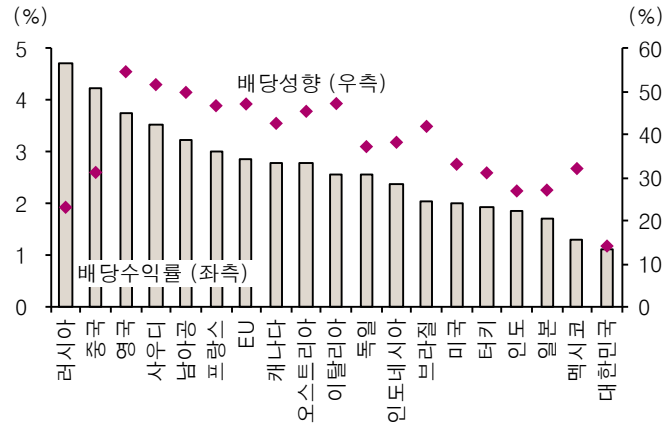
배당투자에 대한 시장 내외의 관심이 뜨겁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기업 배당률 확대와 배당투자 관련 상품 세제지원 필요성을 역설해온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등장은, 배당투자 활성화 논의의 기폭제가 되었다.

일각에서는 배당소득세율 인하와 적정유보초과소득세 과세 및 배당주 펀드 세제혜택 등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자본차익(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배당소득 과세의 현 세제환경 아래서는 배당투자가 최적의 투자안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현 경제여건을 고려했을 때 내부유보로 점철된 기업 배당정책이 최적의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존재한다.

결국, 배당소득 감세를 통해 배당투자 수요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유보의 적정선 통제를 통해 우량 배당주 공급을 늘려 배당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 것이 향후 정책변화의 핵심이다. 시장측면에서는 증시 배당투자에 정책 모멘텀이 가세하는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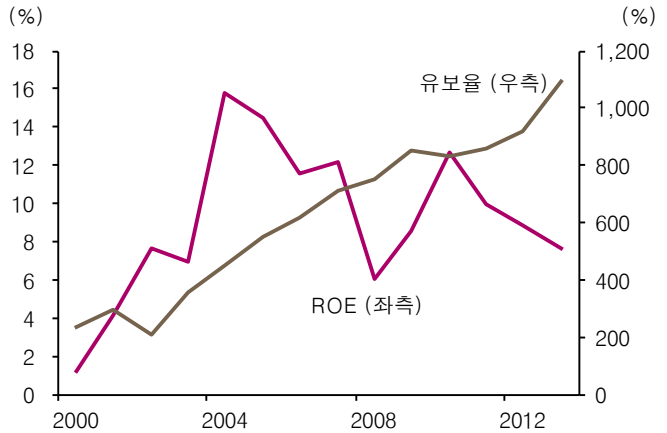
한국증시 배당환경이 전 세계 주요국 중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배당여건의 점진적 개선은 시장의 중장기 핵심과제 중 하나임에 틀림 없다 (그림 1). 특히, 한국경제가 고도 성장기를 마감하고, 저성장 성숙경제로 변모해가는 시점에서, 증시 배당여건 개선은 약화된 성장성을 보완하는 유의미한 대안으로 평가 가능하다 (그림 2). 우리가 배당투자를 주목해야 하는 주요한 이유기도 하다.

**그림 1. G20 국가 배당수익률 및 배당성향 현황**




자료: Bloomberg

**그림 2. KOSPI 유보율과 ROE 추이**




자료: Dataguide

## 배당투자를 국내증시 또 하나의 Hidden Growth로 보는 이유

우리는 증시 배당수익률 및 배당성향 개선에 기반한 배당투자 활성화를 시장의 숨겨진 중장기 성장원천으로 판단한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

첫째. 주주친화적 배당정책 변화는 우수한 기업지배구조 확보와 기업 대리인 비용 최소화의 방증이다. 국내증시 구조적 저평가 현상(Korea Discount)의 근저에는 열악한 기업지배구조 환경이 자리하고 있다. 지배구조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주주권 강화와 이사회 및 공시, 감사기구 확대, 그리고 경영성과의 원활한 배분작업이 중요하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아시아기업지배구조연구소(ACGA)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수준은 여타 아시아 국가 대비 매우 취약함을 발견할 수 있다 (표 1). 특히, 제도적 환경 보다는 기업 내부 여건의 취약성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대리인 비용과 자본조달비용을 고려치 않는 기업 배당정책이 문제의 핵심이다.

**표 1. 아시아 11개국 기업지배구조 환경 평가**

| 순위 | 국가 | 기업지배구조 평가 점수 | | | 지배구조 개선 추세 점검 |
|---|---|---|---|---|---|
| | | 2007 | 2010 | 2012 | |
| 1 | 싱가폴 | 65 | 67 | 69 | 점진적 개선. 사회문화적 요소 보완 필요 |
| 2 | 홍콩 | 67 | 65 | 66 | 정체. 관련 법규정 개선 긍정적 |
| 3 | 태국 | 47 | 55 | 58 | 점진적 개선. 기업 부패척결이 선결과제 |
| 4 | 일본 | 52 | 57 | 55 | 정부는 소극적, 기업은 적극적 |
| 5 | 말레이시아 | 49 | 52 | 55 | 사회문화적 환경 개선 가시화 |
| 6 | 대만 | 54 | 55 | 53 | 점진적 개선 |
| 7 | 인도 | 56 | 48 | 51 | 제도는 갖췄지만, 정치권 의지는 미흡 |
| 8 | 대한민국 | 49 | 45 | 49 | 정부는 적극적, 기업은 소극적 |
| 9 | 중국 | 45 | 49 | 45 | 제도는 개선 중이나 사회문화적 환경 취약 |
| 10 | 필리핀 | 41 | 37 | 41 | 점진적 개선. 지속 가능성은 의문 |
| 11 | 인도네시아 | 37 | 40 | 37 | 퇴보 |
| | 평균 | 51.1 | 51.8 | 52.6 | |

자료: 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ACGA) "CG Watch 2012: Market Rankings"

통상 기업 배당정책은 대리인 비용의 최소화와 외부조달에 따른 자본비용 상승효과를 고려해 결정된다. 대리인 비용 문제가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얼마나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슈라면, 자본조달비용 문제는 내부유보를 포기한 대가로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자본비용 상승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다.

지배구조가 열악하고, 외부자본조달의 제약이 높지 않은 한국기업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낮은 배당률은 경영자와 주주간에 심각한 정보비대칭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볼 수 있다. 주주 부의 극대화가 기업활동의 중심에 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가치의 제고는 요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배당환경의 개선은 이러한 제반 문제에 대한 반증이자,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내포하고 있다는 중요한 변화로 판단한다. 배당이 프리미엄 밸류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둘째. 주주이익 환원에 대한 인식전환이 확대되고 있다. 저성장 환경이 계속되며 기업의 잉여 현금자산 축적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환경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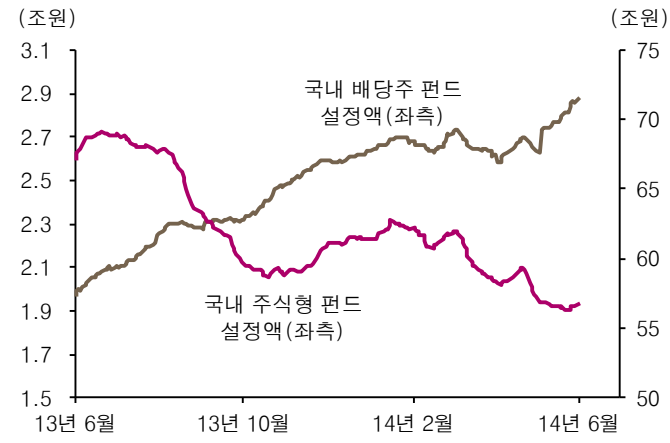
유보의 의미를 재해석해보면, 본래 주주의 이익으로 귀속되어야 할 경영성과 재원이, 주주환원 대신 기업측에 재투자를 위탁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기본전제는 주주가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요구수익률, Ke), 기업의 재투자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자기자본이익률, ROE)를 기대한다는 것인데, 저성장 · 저금리 환경 앞에서 상기 대전제는 무력화되고 만다.

유보이익을 희생했음에도 ROE가 Ke를 하회하는 상황이 거듭된다면, 종국에는 투자자의 외면과 함께 기업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주주에게 배당을 늘려서, 주주가 스스로 더 나은 투자기회를 찾도록 지원하는 것이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한다.

또한, 인구고령화가 심화되며 은퇴자산 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정 현금흐름 창출자산에 대한 선호도 개선으로 연결될 것인데, 1차적 관심은 이자부 채권이나 연금자산 등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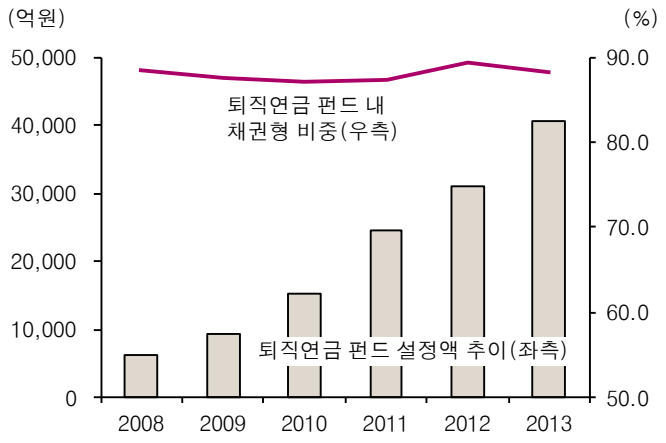
그러나 구조적 저금리 환경을 추가로 고려해본다면, 신뢰도 높은 배당정책을 고수하며 안정적으로 높은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한 관심 역시 구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국내 주식형 펀드의 환매러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설정액의 지속적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배당주 펀드의 모습이나 (그림 3), 은퇴 및 퇴직관련 상품의 구조적 증가추세는 Fixed Income 자산으로서의 배당주의 가능성을 지지하는 증거로 판단한다 (그림 4). 시장의 질적 개선을 위한 당위성 외에도,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기인한 수요요인 역시 배당투자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3. 국내 주식형 및 배당주 펀드 설정액 추이**




자료: 제로인

**그림 4. Fixed Income 자산 수요의 구조적 증가**




참고: 채권형은 채권형, 채권혼합형, 해외채권형 합산
자료: 펀드닥터

## 잠재적 배당 유망주: (1) 성숙산업 내 배당정책 개선 기대주

전통적 고배당주에 대한 논의는 이미 시장전반에서 충분하게 전개되었다. HTS 클릭 몇 번 만으로도 시장의 대표 배당주에 대한 정보는 쉽사리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주주이익 환원 개념을 배당에서 자사주매입까지 확대하는 시도 역시 이전 전략자료를 통해 제시한 바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주이익환원율이 높은 기업을 찾아서' 2013. 5. 2, 김용구,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우선주 5選', 2014. 3. 5, 김용구 참고).*

이에 이번 장에서는, 성숙산업 내 높은 수준의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창출 중인 기업들을 통해 잠재적 배당 유망주 후보군을 도출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스티브 잡스 사후 폭발적인 성장성은 약화되었지만, 주주 친화적 재무정책 변화가 가시화되며 연일 신고가 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Apple과 같은 사례를 국내증시에서 찾아보려는 시도인 것이다.

현재 배당여건은 투자자의 눈높이에 상당부분 부족하지만, 높은 수준의 사내유보를 통해 추가적인 배당여력을 확보하고 있고, 주주구성이 다변화되어 의결권 행사의 여지가 비교적 높으며, 이익성장의 정체가 나타나 배당압력이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종목군에 초점을 뒀다. 우선주 포함 KOSPI, KOSDAQ 전 종목을 대상으로, 자본잠식 및 부채비율 과다(300% 초과, 공기업 및 금융법인 제외) 기업과 이익 안정성이 취약한 기업은 배제했다 (표 2).

**표 2. 성숙산업 내 배당정책 개선 기대 종목군**

| 구분 | 시가총액(십억원) | 유보율(%) | 부채비율(%) | 최근 3년 EPS 증가율(%) | 최대주주 지분율(%) | 배당수익률 (3년 평균, %) | 배당성향 (3년 평균, %) |
|---|---|---|---|---|---|---|---|
| 삼성전자 | 222,777.7 | 16,809.6 | 42.7 | 23.6 | 17.7 | 0.7 | 6.2 |
| 현대모비스 | 27,354.5 | 4,017.6 | 70.5 | 8.0 | 30.2 | 0.6 | 5.4 |
| 삼성화재 | 12,599.3 | 32,547.4 | 526.8 | -9.5 | 14.4 | 1.5 | 22.3 |
| 이마트 | 6,369.6 | 4,614.2 | 94.9 | 23.6 | 27.1 | 0.5 | 8.5 |
| 오리온 | 5,317.2 | 3,716.4 | 134.3 | -9.4 | 31.5 | 0.3 | 12.4 |
| 엔씨소프트 | 3,892.4 | 11,253.1 | 27.7 | 3.2 | 14.7 | 0.3 | 8.4 |
| 신세계 | 2,087.2 | 4,803.6 | 124.3 | -17.8 | 27.1 | 0.4 | 4.2 |
| LIG손해보험 | 1,680.0 | 4,981.0 | 1,273.6 | 8.8 | 21.1 | 2.3 | 18.9 |
| 이오테크닉스 | 752.2 | 3,730.3 | 48.3 | 0.4 | 32.5 | 0.3 | 5.0 |
| 대덕GDS | 267.4 | 3,616.6 | 30.4 | 11.3 | 19.6 | 2.2 | 23.4 |

자료: Dataguide, 삼성증권

## 잠재적 배당 유망주: (2) 주주 의결권 행사 강화 (국민연금/사모펀드/정부 등)

주주가 기업 배당정책에 적극적으로 권리행사에 나설 수 있는 기업의 경우, 배당정책에 대한 신뢰도와 연속성에 대한 기대는 상승할 수 있다.

첫째. 국민연금 주식 보유비중이 높거나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기업들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3년 말 현재,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보유 비중은 7.1%이고, 2018년경에는 13%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국민연금 배당금 수익은 2011년 3,329억원에서 2012년 6,244억원, 2013년 7,132억원으로 빠르게 확대되었다. 이는 국민연금이 기업 배당정책에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단기 트레이딩 보다는 중장기 Buy & Hold를 견지하는 기금운용의 특성상, 국민연금은 국내증시 배당환경 개선의 첨병으로 기능할 공산이 크다. 하나투어(지분율 13.2%, 배당수익률 1.7%), 한섬(지분율 12.4%, 배당수익률 0.9%), CJ CGV(지분율 11.5%, 배당수익률 0.8%) 등 국민연금의 배당률 개선요구가 커질 수 있는 잠재 후보군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요 사모펀드(PEF)가 최대주주로 등재된 기업 역시 신뢰도 높은 배당 유망주로 꼽기에 손색없다. 2013년 초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이후, 국내 렌탈시장의 견조한 성장과 함께 중국 공기청정기 시장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코웨이(배당수익률 4.1%)와 소로스펀드 등 주요 헤지펀드(지분율 50%) → 美 비스테온(지분율 70%) → 한라비스테온공조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한라비스테온공조(배당수익률 2.5%)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기업에 대한 정부측 배당압력 또한 간과하기 어렵다. 특히 공기업 경영 정상화의 초점이 수익성 개선과 함께 부채비율의 하락에 맞춰져 있다는 것은 상기 공기업이 안정적 배당 유망주로 탈바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 지분이 높고, 배당여력이 충분하며, 경영 정상화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공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력(배당수익률 0.3%)은 한국정책금융공사(지분율 29.9%)와 정부(21.2%)가 최대주주이며, 공기업 체질개선과 전기료 현실화 및 원화 강세의 3중 수혜가 기대되는 잠재적 배당 유망주로 평가한다. 기획재정부(지분율 60%)가 최대주주인 기업은행(배당수익률 2.7%) 역시 견조한 이익성장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배당수익률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기업은행 외 정부 관계기관 지분율은 미미하지만, 정부측 담배가격 인상의 수혜와 함께 지속적인 배당수익률 개선이 기대되는 KT&G(배당수익률 4.3%) 역시 주목할만한 배당 유망주로 볼 수 있다.

## 잠재적 배당 유망주를 찾아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한국증시의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잠재적 배당 유망주 10 종목을 선별했다 (표 3).

**표 3. 한국증시 Hidden Growth: 잠재적 배당 유망주 10選**

| 구분 | 종목명 | 영업이익(십억원) | | | P/E (배) | P/B (배) | 수익률(%) | | |
|---|---|---|---|---|---|---|---|---|---|
| | | 2013 | 2014(E) | 증가율(%) | | | 1 개월 | 3 개월 | 6 개월 |
| 성숙산업 내 배당정책 개선 기대 | 삼성전자 | 38,262.8 | 34,800.6 | (9.0) | 7.8 | 1.3 | -5.8 | 5.7 | -5.0 |
| | 현대모비스 | 2,801.3 | 3,173.1 | 13.3 | 7.4 | 1.2 | -5.6 | -7.3 | -2.1 |
| | 오리온 | 259.3 | 289.2 | 11.5 | 31.1 | 4.1 | 1.0 | 9.2 | -3.4 |
| | 이마트 | 723.3 | 762.7 | 5.4 | 12.6 | 0.9 | -3.2 | -4.6 | -14.4 |
| | 대덕GDS | 71.7 | 67.5 | (5.8) | 4.9 | 0.6 | -18.3 | -22.5 | -28.2 |
| 주주 의결권 행사 강화 | 하나투어 | 42.2 | 46.9 | 11.0 | 19.9 | 3.5 | 5.7 | -7.8 | 4.1 |
| | 코웨이 | 328.2 | 385.5 | 17.5 | 22.5 | 5.5 | -1.8 | 13.5 | 28.1 |
| | 한라비스테온공조 | 357.9 | 410.3 | 14.6 | 14.6 | 2.8 | -0.9 | 5.3 | 18.8 |
| | 한국전력 | 1,607.4 | 5,408.5 | 236.5 | 10.9 | 0.5 | -2.4 | 7.0 | 16.3 |
| | KT&G | 982.2 | 1,065.6 | 8.5 | 15.8 | 2.1 | 3.6 | 12.1 | 14.9 |

자료: Dataguide, 삼성증권

**이남룡**
nr.lee@samsung.com
02 2020 7035

# 삼성 TOP 10

| 삼성 TOP 10 연간 수익률 (2014. 1. 2 ~ 6. 24) | 삼성 추천 포트폴리오 | KOSPI | 초과 수익률 |
|---|---|---|---|
| | +9.57 | −0.84 | +10.41 |

| 종목 | 주가 (원) | 투자포인트 | 편입일 | 수익률 |
|---|---|---|---|---|
| 삼성물산 (000830) | 73,800 | – 그룹 관계사 상장 발표 이후 계열사 보유지분 가치 재평가 기대<br>– 2분기 이후 이익 모멘텀 상승과 현금흐름 개선의 가시성 부각 | 6/11 | (−0.8%) |
| 삼성전자우* (005935) | 1,080,000 | – 이익 전망치 하락보다 주주환원 확대 가능성에 초점을 둔 매수 기회<br>– 최근 주가 조정으로 보통주 대비 괴리율이 평균 수준으로 회귀 | 5/29 | (−1.4%) |
| CJ제일제당 (097950) | 343,000 | – 원화 강세로 원재료 수입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감 부각<br>– 바이오부문 중국 라이신 가격 반등 기대감에 하반기 실적 회복 전망 | 5/2 | (+10.6%) |
| 아모레퍼시픽 (090430) | 1,520,000 | – 수익성 높은 면세점과 온라인 채널 판매 증가로 국내 실적 개선세<br>– 높은 브랜드력 기반 중국 화장품 시장 M/S 증가로 해외 수출 본격화 | 3/27 | (+23.1%) |
| 코웨이* (021240) | 84,000 | – 중국 대기오염 심화에 따라 공기청정기 수출 고성장 전망<br>– 국내 렌탈 사업 호조 및 원가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 지속 | 2/27 | (+20.9%) |
| KCC (002380) | 618,000 | – 향후 리모델링 시장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이익 성장세 전망<br>–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시 동사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가치 부각 | 2/18 | (+21.9%) |
| 현대모비스 (012330) | 281,000 | – 현대차그룹 신차 사이클 도래 및 Capa 확대의 최대 수혜주<br>– 자동차산업 상승사이클 진입으로 완성차대비 주가 프리미엄 확대 예상 | 1/2 | (−2.2%) |
| SK하이닉스 (000660) | 50,300 | – 메모리 시장 과점화·제한적인 추가증설 등으로 업황 사이클 상승 전망<br>– 플레이스테이션 판매호조로 소니향 메모리 수요 증가 기대감 부각 | 1/2 | (+38.0%) |
| NAVER (035420) | 825,000 | – 게임 · 광고사업 등으로 5년내 전체 매출 50%이상이 라인에서 발생<br>– 경쟁사 위챗 약 40~50조원 평가 감안시 11조원 수준 라인가치 저평가 | 1/2 | (+12.6%) |
| 한국전력 (015760) | 39,900 | – 13년 9.4% 전기료 인상과 원화 강세 진행으로 2014년 실적 개선 전망<br>–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내 원전비중 증가로 저비용 발전량 증가 예상 | 1/2 | (+15.7%) |

참고: *당사 비커버리지 종목 / ELW 발행 및 유동성 공급 – 한국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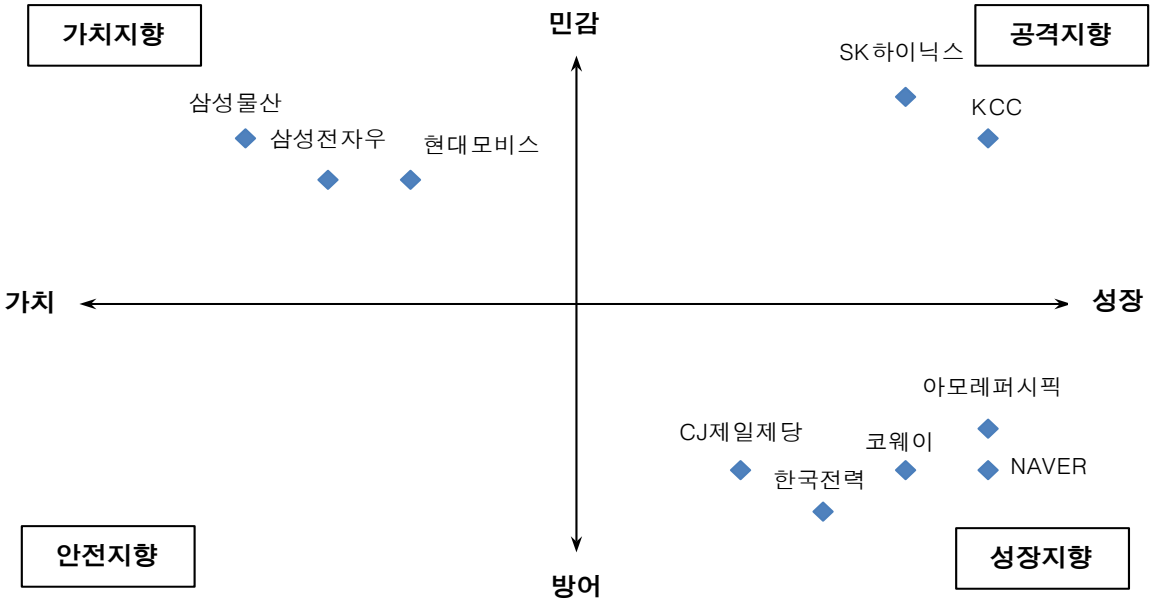
| ETF | 주가 (원) | 투자포인트 | 편입일 | 수익률 |
|---|---|---|---|---|
| KODEX삼성그룹 (102780) | 6,065 | – 개별 종목보다 그룹주 전체에 대한 최적 접근<br>– 이동평균선 결집후 정배열 진입 패턴 완성으로 기술적 매수타이밍 발생 | 5/16 | (−0.3%) |

참고: 추천 ETF는 TOP−10 포트폴리오와는 별개로 운용되어 수익률 산정에는 반영이 안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TOP 10 스타일별 분류 및 트레이딩 밴드

| 종목 | 가치 | 성장 | 모멘텀 | 민감주 | 방어주 | 금리민감 | 환율민감 |
|---|---|---|---|---|---|---|---|
| 삼성물산 | O | | O | O | | O | |
| 삼성전자우 | O | | O | O | | | O |
| CJ제일제당 | | O | | | O | | O |
| 아모레퍼시픽 | | O | | | O | | O |
| 코웨이 | | O | | | O | | |
| KCC | | O | O | O | | O | |
| 현대모비스 | O | | | O | | | O |
| SK하이닉스 | | O | | O | | | O |
| NAVER | | O | | | O | | O |
| 한국전력 | | O | | | O | O | O |

.




삼성 TOP 10 포트폴리오 편입 종목을 가치/성장/모멘텀, 민감주/방어주, 금리민감/환율민감 등 유형별로 분류함으로써 투자자별 성향에 맞는 종목 선택을 위한 지표를 제공합니다.
테크니컬 트레이딩 밴드는 차트 분석상 단기적인 매매를 위한 가격대로서 절대적인 밴드는 아닙니다. 단기 수급 동향 및 돌발변수에 따라 수시로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활용하길 권고합니다.

# 테크니컬 트레이딩 밴드

| 종목 | 트레이딩 밴드 | 근거 |
|---|---|---|
| 삼성물산 | 70,000 ~ 82,000 | – 4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70,000원선을 중장기 지지선으로 설정<br>– 20일선 이격도 110% 구간인 82,000원선이 단기 트레이딩 목표 |
| 삼성전자우 | 980,000 ~ 1,250,000 | – 주봉 60주 이동평균선 지지 및 직전 박스권 상단의 지지력 견고<br>– 20일선 이격도 110선을 단기 트레이딩 목표로 설정 |
| CJ제일제당 | 322,000 ~ 380,000 | – 4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322,000원선을 중장기 지지선으로 설정<br>– 전고점 및 2015년 예상실적 기준 17배 수준 38만원선을 상단 설정 |
| 아모레퍼시픽 | 1,385,000 ~ 1,600,000 | – 중기 지지선인 40일 이동평균선 위치 구간인 138만원이 지지선 설정<br>– 20일선 이격도 110선 가격인 160만원을 단기 트레이딩 목표로 설정 |
| 코웨이 | 79,500 ~ 100,000 | – 60일 중장기 이평선 지지 구간이자 예상 실적 대비 20배 구간이 하단<br>– 20일선 이격도 110선 구간이자 예상실적 대비 25배 구간이 저항선 |
| KCC | 610,000 ~ 750,000 | – 직전 박스권 돌파 가격대이자 20일 이동평균선 가격인 61만원이 하단<br>– 20일 이격도 120% 구간이자 예상 실적 대비 28배인 75만원 목표 |
| 현대모비스 | 277,000 ~ 320,000 | – 60주선 및 120주선 지지 구간 및 PER밴드 저점 가격대가 하단 밴드<br>– 중기 박스권 상단 라인이자 전고점 매물대 구간이 의미 있는 저항선 |
| SK하이닉스 | 45,000 ~ 51,000 | – 20일 이동평균선 지지선 위치구간이자 최근 2개월 매물대구간이 하단<br>– 20일 이격도 110% 구간이자 올해 예상실적 대비 10배 가격이 목표 |
| NAVER | 740,000 ~ 850,000 | – 장기이평선 및 6개월 매물대 구간인 70만원 초중반이 단기 하단<br>– 연중 고점 라인이자, 20일선 이격도 110% 구간인 90만원 단기 상단 |
| 한국전력 | 35,500 ~ 43,000 | – 2~3월 박스권 주요 지지선이자 PBR 0.5배 이하 수준이 하단 구간<br>– 전고점 구간이자 최근 3년내 PBR 밴드 상단 구간이 의미있는 저항선 |

# 삼성 Top 10 유니버스

| | 종목명 | 시가총액 | 영업이익 (십억원) | | | P/E | P/B | 수익률 (%) |
|---|---|---|---|---|---|---|---|---|
| | | (십억원) | 2013 | 2014(E) | 전년대비 (%) | (배) | (배) | 1개월 |
| 1 | 삼성전자 | 222,778 | 36,785 | 34,584 | (6.0) | 7.6 | 1.2 | (5.8) |
| 2 | SK하이닉스 | 35,792 | 3,380 | 4,664 | 38.0 | 9.3 | 1.9 | 18.8 |
| 3 | 현대모비스 | 27,354 | 2,924 | 3,170 | 8.4 | 7.0 | 1.1 | (5.6) |
| 4 | NAVER | 27,194 | 524 | 840 | 60.2 | 39.7 | 9.2 | 6.3 |
| 5 | 한국전력 | 25,614 | 1,519 | 5,470 | 260.1 | 9.5 | 0.5 | (2.4) |
| 6 | 삼성물산 | 11,739 | 433 | 694 | 60.2 | 21.8 | 1.0 | 4.5 |
| 7 | 아모레퍼시픽 | 9,686 | 370 | 453 | 22.4 | 28.9 | 3.5 | 4.2 |
| 8 | KCC | 6,501 | 232 | 313 | 35.1 | 23.4 | 1.2 | 5.8 |
| 9 | 코웨이 | 6,478 | 339 | 395 | 16.5 | 21.0 | 5.0 | (1.8) |
| 10 | CJ제일제당 | 4,713 | 345 | 5,181 | 1,399.8 | 18.0 | 1.5 | 5.2 |
| 11 | 현대차 | 59,466 | 8,315 | 8,502 | 2.2 | 6.9 | 1.0 | (3.7) |
| 12 | LG화학 | 20,607 | 1,743 | 1,785 | 2.4 | 13.6 | 1.6 | 7.9 |
| 13 | LG | 11,228 | 1,154 | 1,288 | 11.6 | 9.8 | 0.8 | 6.6 |
| 14 | LG디스플레이 | 11,074 | 1,163 | 1,124 | (3.4) | 15.1 | 0.9 | 8.8 |
| 15 | 현대글로비스 | 9,863 | 637 | 690 | 8.3 | 17.5 | 3.2 | 4.0 |
| 16 | SK C&C* | 8,575 | 225 | 261 | 15.8 | 17.7 | 2.5 | 4.3 |
| 17 | 고려아연 | 7,350 | 599 | 662 | 10.5 | 13.1 | 1.5 | 5.3 |
| 18 | 한라비스테온공조 | 4,756 | 364 | 402 | 10.5 | 13.6 | 2.6 | (0.9) |
| 19 | 두산중공업 | 3,599 | 958 | 949 | (0.9) | 14.2 | 0.7 | 0.3 |
| 20 | 파라다이스 | 3,588 | 134 | 148 | 10.3 | 25.7 | 3.8 | 6.6 |
| 21 | 호텔신라 | 3,524 | 87 | 121 | 39.3 | 29.2 | 4.2 | (3.4) |
| 22 | 에스원 | 3,048 | 129 | 195 | 51.0 | 22.0 | 2.7 | 1.4 |
| 23 | SK네트웍스 | 2,546 | 241 | 255 | 5.8 | 12.1 | 0.9 | 2.6 |
| 24 | CJ E&M | 1,681 | 584.7 | 1,058 | 80.9 | 21.2 | 1.2 | (9.0) |
| 25 | 대상* | 1,637 | 156 | 168 | 7.7 | 13.8 | 2.0 | 2.7 |
| 26 | 동서* | 1,625 | 51 | N/A | N/A | N/A | N/A | 0.6 |
| 27 | 오뚜기* | 1,570 | 105 | 118 | 12.3 | 14.9 | 1.8 | 3.4 |
| 28 | 넥센타이어* | 1,561 | 177 | 208 | 17.3 | 11.0 | 1.7 | 9.4 |
| 29 | 세아베스틸* | 1,144 | 144 | 160 | 11.0 | 9.3 | 0.7 | 16.6 |
| 30 | 태영건설* | 427 | 90 | N/A | N/A | N/A | N/A | (14.6) |

참고: * 당사 비커버리지 종목 / 밸류에이션 지표는 12개월 선행 기준 / 계열사 – 삼성전자, 에스원, 삼성물산, 호텔신라 /
1% 이상 지분 보유 – 에스원, 호텔신라 / ELW 발행 및 유동성 공급 – 한국전력 / 상기 종목은 시가총액순으로 나열
* 음영 처리된 10개 종목은 현재 삼성 Top 10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종목입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투자 유망 종목으로 관리하는 유니버스입니다.

**홍승표**
seoungpyo.hong@samsung.com
02 2020 7038

# 모멘텀 플레이 유망주

| 종목 | 투자 포인트 | 추천일(수익률) |
|---|---|---|
| SK케미칼*<br>(006120) | – 고수익성의 PETG 증설,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험사업으로 화학 부문 실적 개선 본격화<br>– 인플루엔자 백신(임상 3상 종료), 수두 및 폐렴 백신(임상 3상 중) 등 신약 상용화 임박<br>– 글로벌 상위제약사와 계약한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혈우병 치료제 등 파이프라인 부각 | 6/20<br>(+0.5%) |
| 삼화페인트*<br>(000390) | – 건축물 준공면적 확대 및 친환경 페인트 사용량 증가로 수익성 개선세 지속<br>– 2013년 급증했던 조선 수주 물량의 발주 진행으로 조선향 페인트 수요 증가<br>– 올해 예상순이익은 392억원으로 PER 8배 수준의 밸류에이션 메리트 보유 | 6/13<br>(+1.0%) |
| 국보디자인*<br>(066620) | –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국내 1위 업체로 리모델링 수요 확대로 인한 중장기 성장성 부각<br>– 2014년 말 예상 순현금은 650억원 수준으로 현시가총액의 50%이상 보유<br>– 올해 예상순이익은 170억원 수준으로 PER 7.7배 수준의 밸류에이션 메리트 보유 | 6/13<br>(+6.7%) |
| 동서*<br>(026960) | – 국내 커피믹스 분야 1위 기업으로 맥심과 카누로 대표되는 파워브랜드 소유<br>– 매년 1,600억원 전후의 안정적인 순이익을 바탕으로 3%중반대의 시가배당율 유지<br>– 올해 예상순이익은 1,400억원 수준으로 PER 11.5배 수준의 밸류에이션 메리트 보유 | 5/29<br>(–2.7%) |
| 세아베스틸*<br>(001430) | – 특수강 시장 성수기인 2분기에 원재료인 철강 스크랩 가격 하락으로 수익성 개선 기대<br>– 매년 2,500억원 수준의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3%중반대의 시가배당율 유지<br>– 올해 예상순이익은 1,280억원 수준으로 PER 8배 수준의 밸류에이션 메리트 보유 | 5/9<br>(+15.2%) |
| 한양이엔지*<br>(045100) | – 주고객사인 삼성전자의 화성 17라인 투자와 A3라인 투자 가시화로 수익성 개선 기대<br>– 반도체 분야의 특수 설비 경험을 바탕으로 태양광, 우주항공 분야 설비로 시장확대 진행중<br>– 올해 예상 당기순이익은 230억원 으로 PER 5.8배 수준의 밸류에이션 메리트 보유 | 5/2<br>(+4.0%) |
| 경창산업*<br>(024910) | – 자동변속기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현대·기아차 및 현대오토텍으로 납품<br>– 중국 자동차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선전 및 자동변속기 장착률 상승의 수혜 지속<br>– 올해 예상 영업이익 370억원 기준 PER 6.3배로 밸류에이션 메리트 부각 | 3/27<br>(+11.1%) |

참고: * 당사 비커버리지 종목

**주식전략팀 해외주식**
e.trading@samsung.com
02 20207306

# 글로벌 Best 11

| 글로벌 Best 11 누적 수익률 (2014. 1. 2. ~2014. 6. 23.) | 글로벌 Best 11 | MSCI World& China | 초과 수익률 |
|---|---|---|---|
| | −2.09% | +2.23% | −4.32%pt |

| 종목 (티커) | 시장 | 주가 | 투자포인트 | 편입일 | 수익률 |
|---|---|---|---|---|---|
| iShares MSCI 중국 (2801) | 홍콩 | HKD 19.78 | − 위안화 약세에 따른 수출 경기 호조 및 인민은행의 탄력적 유동성 관리 기대<br>− 중국 6월 HSBC 제조업 PMI 속보치 51.1로 경기 확장 국면 진입 | 6/24 | (+0.0%) |
| 노무라 토픽스 ETF (1306) | 일본 | JPY 1306 | − 3분기 미국 경기 모멘텀 회복에 따른 직접적 수혜 전망<br>− 미국, 영국, 스페인 등 선진시장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 6/20 | (+0.0%) |
| 몬산토 (MON) | 미국 | USD 122.10 | − 4년째 시장점유율 및 제품 Mix의 개선이 동반되는 성장이 예상<br>− 경쟁사 대비 우월한 Bio기술은 동사의 장기 성장 기반 | 5/26 | (+5.4%) |
| 미국 산업재 ETF (XLI) | 미국 | USD 54.70 | − GE, 보잉, 유나이티드테크놀러지, 3M, 유니온퍼시픽 등 대표 산업재 보유<br>−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설비투자 증대로 산업재 섹터 강세 지속 전망 | 5/9 | (+6.1%) |
| AT&T (T) | 미국 | USD 35.39 | − 연간 배당률이 5%를 상회하는 미국 대표 배당주<br>− 유선전화 서비스 종료 및 고마진 무선 서비스 사업 성장 전망 | 4/16 | (+1.9%) |
| UPS (UPS) | 미국 | USD 102.46 | − 글로벌 경기 회복 및 e-commerce 거래 증가에 따른 실적개선 기대<br>− IT 시스템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인건비 및 기타비용 감소 전망 | 3/26 | (+4.9%) |
| 미쉐린 (ML) | 프랑스 | EUR 88.83 | − 최근 캐나다 공장을 정리하는 등 공장수를 줄이고 생산성 향상 도모<br>− 저평가 매력 부각되고 있으며 타이어 매출의 안정적 성장 기대 | 3/26 | (−0.4%) |
| 엑슨 모빌 (XOM) | 미국 | USD 104.38 | − 경쟁업체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 및 ROE에도 밸류에이션저평가<br>− 말레이시아 2억 큐빅피트 규모의 신규 천연가스 유전에서 생산 시작 | 1/27 | (+10.0%) |
| 구글 (GOOGL) | 미국 | USD 574.29 | − 적자 사업부인 모토롤라 매각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br>− 로봇업체 인수합병 및 팍스콘과의 제휴를 통한 로봇사업 본격 진출 | 1/2 | (+2.4%) |
| 존슨앤존슨 (JNJ) | 미국 | USD 104.75 | − 연이은 신약 출시로 제약 사업부문 매출 호조세 지속<br>− 미국 FDA로부터 백혈병치료제 임브루비카 승인되며 기대감 상승 | 1/2 | (+14.4%) |
| 폭스바겐 (VOW3) | 독일 | EUR 195.10 | − 전체 매출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의 매출 증가 지속<br>− 리터당 111km를 주행하는 XL1 개발로 연비관련 기술 우수성 입증 | 1/2 | (−4.4%) |

참고: 편입비중은 균등하게 배분. 벤치마크 산출에 대한 시차 관계상 종가는 전일종가로 기록

# 글로벌 ETF 5

| 종목 (티커) | 주가 | 펀드 개요 및 투자 포인트 | 편입일 | 수익률 |
|---|---|---|---|---|
| MarketVectors Agribusiness ETF (MOO) | USD 55.50 | –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 농업에서 발생되는 글로벌 농기업에 투자하는 ETF<br>– 주요 보유종목은 신젠타, 몬산토, 디어, 아치 대니얼스 등<br>– 글로벌 기상이변과 식량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농업 기술 발전의 수요 증가 기대 | 5/27 | (+1.4%) |
| PowerShares QQQ NASDAQ 100 (QQQ) | USD 92.79 | – 나스닥 100 지수를 벤치마크로 운용되는 ETF<br>– 주요 보유종목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 시스코시스템즈 등으로 IT 종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br>– 대다수 글로벌 IB는 2014년 미국시장에서 매수 유망한 섹터로 IT 섹터 추천 | 1/3 | (+7.1%) |
| Industrial Select Sector SPDR (XLI) | USD 54.70 | – 미국 내 산업재 섹터에 투자하는 ETF<br>– 주요 보유종목은 GE, 보잉,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3M, 유니온퍼시픽 등<br>–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설비투자 증대로 산업재 섹터가 2014년에도 강세를 지속할 전망 | 1/3 | (+5.9%) |
| iShares Europe (IEV) | USD 50.32 | – 유럽 대표종목 지수인 S&P Europe 350지수를 추종하는 ETF<br>– 주요 보유종목은 네슬레, HSBC홀딩스, 노바티스, 로슈, 보다폰 등<br>– 유로존 불확실성 완화 및 실물경기의 점진적 회복에 따라 대표적 유럽 투자 ETF인 IEV 강세 지속 전망 | 1/3 | (+8.4%) |
| iShares MSCI Europe Financials (EUFN) | USD 25.72 | – 유럽 금융섹터 투자 ETF로 비교적 최근 설정(2010년 2월)<br>– 주요 보유종목은 HSBC홀딩스, 방코산탄데르, 알리안츠, BNP파리바 등<br>– 유로존 경기 회복과 함께 유럽 금융주가 강세를 주도할 전망<br>– 그리스, 스페인 등의 부실 금융기관 주가는 이미 악재가 충분히 반영되었으며, 저평가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우세 | 1/3 | (+5.3%) |

참고: 티커 MOO, QQQ, XLI는 미국 기업 대상의 ETF. 티커 IEV, EUFN은 유럽 기업 대상의 ETF로 미국시장에 상장되어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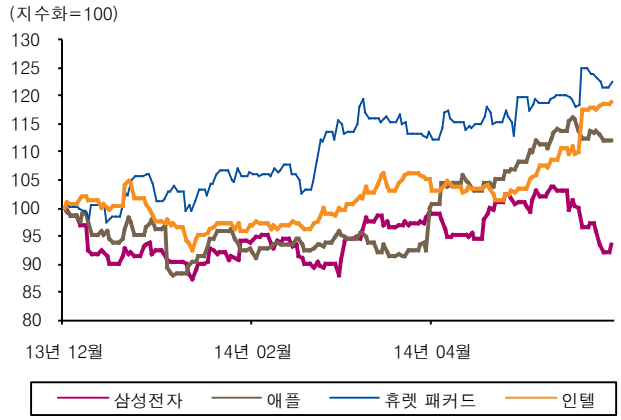
**주식전략팀 해외주식**
e.trading@samsung.com
02 2020 7306

# 글로벌 Peer 분석

## 미국 금융주 신고가 vs. 중국 금융주 약세

- IT 하드웨어 섹터에서 삼성전자 · 애플 · 휴렛 패커드가 모두 부진한 가운데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한 인텔은 신고가 경신. IT 소프트웨어 섹터에서는 네이버가 최근 5일간 6% 가까이 상승하며 global peer들을 크게 outperform. 자동차 섹터에서 도요타자동차와 GM이 강세를 보인 반면, 폭스바겐과 현대차는 부진
- 통신 섹터는 SK텔레콤을 제외한 글로벌 업체들이 대체로 약세. 은행 섹터에서는 공상은행이 크게 하락한 반면, 웰스파고는 신고가 경신. 보험 섹터에서 AIG 역시 신고가를 재차 경신했고, 삼성생명은 최근 5일간 5% 가까이 하락
- 화학 섹터는 전반적으로 부진했고, 정유 섹터는 글로벌 업체들의 강세 속에 SK이노베이션이 하락 후 반등. 유통 섹터의 롯데쇼핑은 약세 지속

**IT (하드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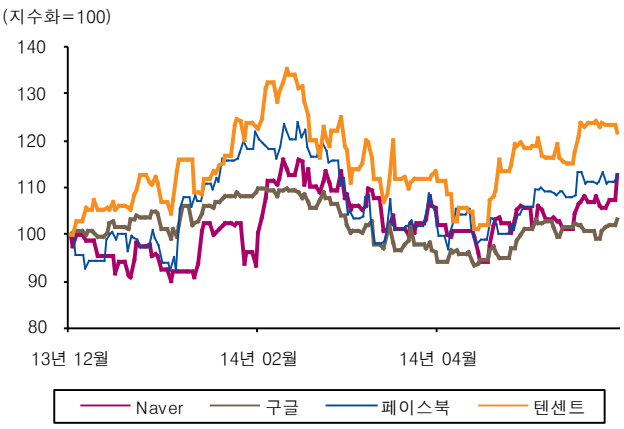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 P/B (배) | P/E (배) | ROE (%) | EPS 증가율 (%) | 1개월 수익률 (%) |
|---|---|---|---|---|---|
| 삼성전자 | 1.3 | 7.4 | 18.2 | (8.1) | (5.8) |
| 애플 | 4.6 | 14.4 | 32.0 | 11.4 | 3.5 |
| 휴렛 패커드 | 2.3 | 9.3 | 23.4 | 4.3 | 2.4 |
| 인텔 | 2.4 | 14.5 | 17.5 | 6.0 | 15.0 |

참고: 밸류에이션 및 EPS증가율은 2014년 추정치 기준

**IT (소프트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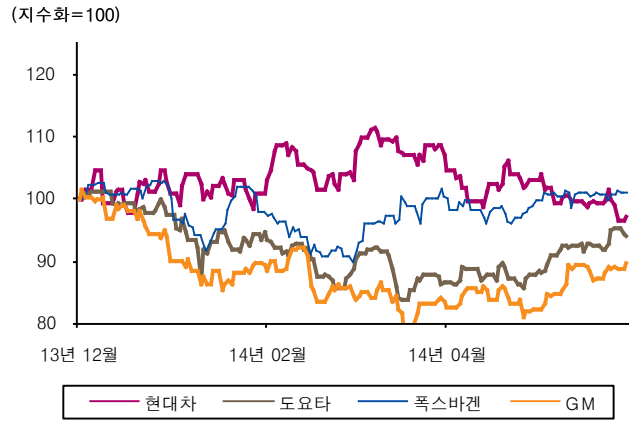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 P/B (배) | P/E (배) | ROE (%) | EPS 증가율 (%) | 1개월 수익률 (%) |
|---|---|---|---|---|---|
| 네이버 | 13.0 | 44.7 | 33.0 | 114.0 | 6.3 |
| 구글 | 3.7 | 21.5 | 17.8 | 22.0 | 1.9 |
| 페이스북 | 9.2 | 45.8 | 19.4 | 62.0 | 6.6 |
| 텐센트 | 11.2 | 37.2 | 32.1 | 29.6 | 3.4 |

참고: 밸류에이션 및 EPS증가율은 2014년 추정치 기준

###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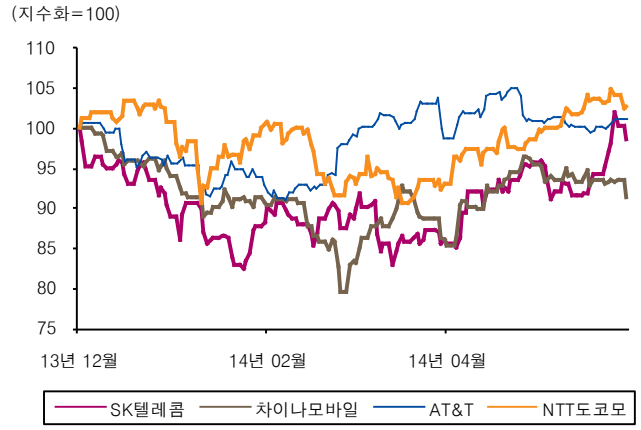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 P/B (배) | P/E (배) | ROE (%) | EPS 증가율 (%) | 1개월 수익률 (%) |
|---|---|---|---|---|---|
| 현대자동차 | 1.0 | 6.3 | 15.7 | (8.4) | (3.6) |
| 토요타자동차 | 1.2 | 9.7 | 12.8 | 7.0 | 7.3 |
| 폭스바겐 | 1.0 | 8.8 | 11.0 | 17.7 | 0.7 |
| 제너럴 모터스 | 1.4 | 11.9 | 13.5 | (3.0) | 9.0 |

참고: 밸류에이션 및 EPS증가율은 2014년 추정치 기준

### 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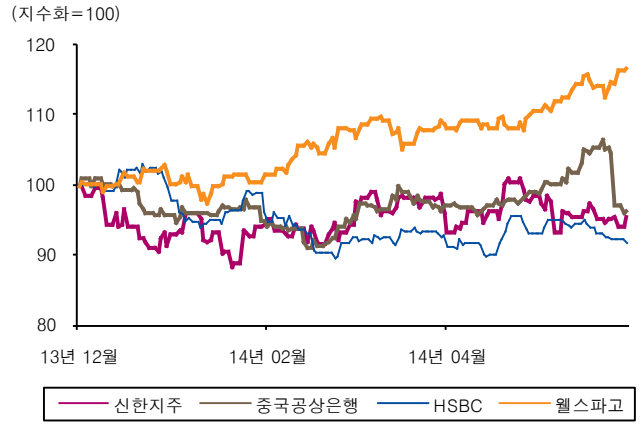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 P/B (배) | P/E (배) | ROE (%) | EPS 증가율 (%) | 1개월 수익률 (%) |
|---|---|---|---|---|---|
| SK텔레콤 | 1.3 | 10.3 | 12.7 | 13.1 | 3.3 |
| 차이나모바일 | 1.4 | 11.5 | 13.0 | (14.0) | (3.9) |
| AT&T | 2.0 | 13.4 | 15.4 | 5.9 | 0.2 |
| NTT 도코모 | 1.2 | 14.3 | 8.7 | 8.5 | 4.3 |

참고: 밸류에이션 및 EPS증가율은 2014년 추정치 기준

### 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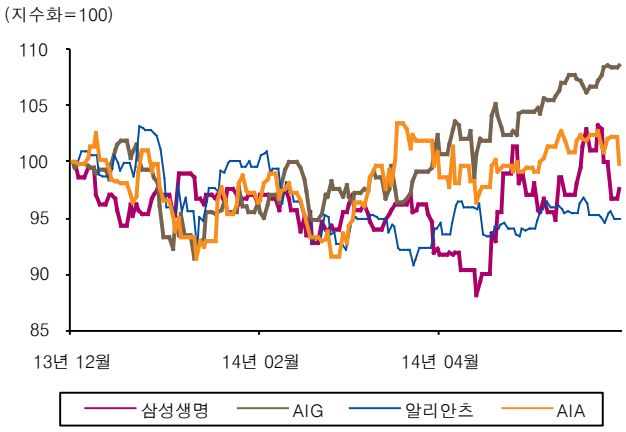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 P/B (배) | P/E (배) | ROE (%) | EPS 증가율 (%) | 1개월 수익률 (%) |
|---|---|---|---|---|---|
| 신한금융지주 | 0.8 | 10.1 | 7.6 | 13.9 | (1.2) |
| 중국 공상은행 | 0.8 | 4.2 | 19.0 | 7.3 | (2.8) |
| HSBC 홀딩스 | 1.0 | 10.9 | 9.4 | 5.1 | (1.4) |
| 웰스파고 | 1.7 | 13.0 | 13.5 | 5.1 | 5.6 |

참고: 밸류에이션 및 EPS증가율은 2014년 추정치 기준

###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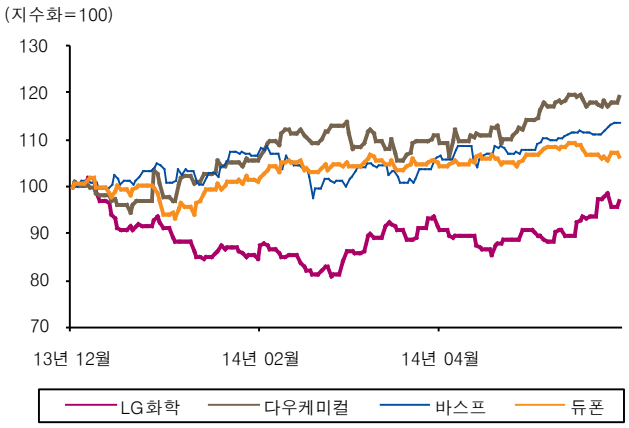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 P/B (배) | P/E (배) | ROE (%) | EPS 증가율 (%) | 1개월 수익률 (%) |
|---|---|---|---|---|---|
| 삼성생명 | 1.0 | 20.1 | 5.3 | 0.4 | 1.0 |
| AIG | 0.7 | 12.5 | 6.6 | (2.4) | 4.0 |
| 알리안츠 | 1.0 | 9.0 | 11.9 | 2.5 | 0.2 |
| AIA | 2.2 | 18.7 | 12.7 | 16.2 | 1.3 |

참고: 밸류에이션 및 EPS증가율은 2014년 추정치 기준

### 화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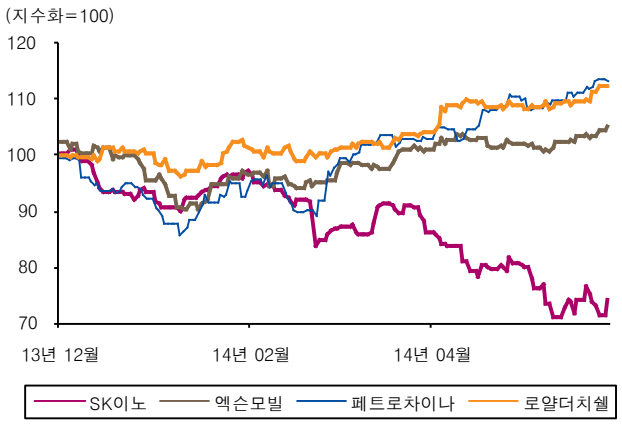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 P/B (배) | P/E (배) | ROE (%) | EPS 증가율 (%) | 1개월 수익률 (%) |
|---|---|---|---|---|---|
| LG화학 | 1.6 | 14.2 | 11.5 | 6.4 | 7.9 |
| 다우 케미컬 | 2.4 | 17.9 | 14.4 | 19.3 | 4.4 |
| 바스프 | 2.7 | 14.8 | 19.2 | 9.6 | 4.7 |
| 듀폰 | 3.8 | 15.8 | 23.6 | 10.7 | (0.2) |

참고: 밸류에이션 및 EPS증가율은 2014년 추정치 기준

### 정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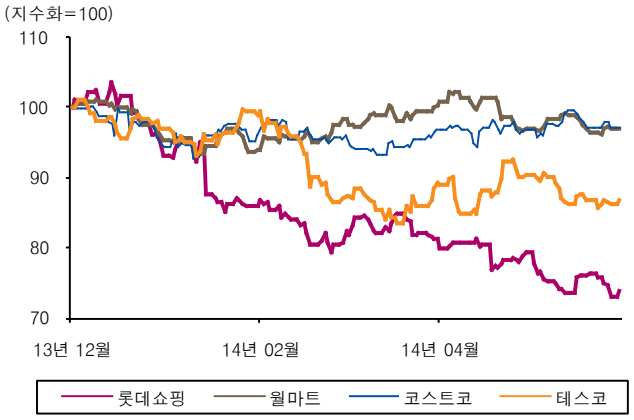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 P/B (배) | P/E (배) | ROE (%) | EPS 증가율 (%) | 1개월 수익률 (%) |
|---|---|---|---|---|---|
| SK이노베이션 | 0.6 | 10.4 | 5.8 | 29.9 | (6.6) |
| 엑슨 모빌 | 2.4 | 13.4 | 18.5 | 5.6 | 3.0 |
| 페트로차이나 | 1.1 | 10.6 | 10.9 | - | 1.8 |
| 로얄더치쉘 | 1.4 | 11.4 | 12.1 | 18.2 | 3.9 |

참고: 밸류에이션 및 EPS증가율은 2014년 추정치 기준

## 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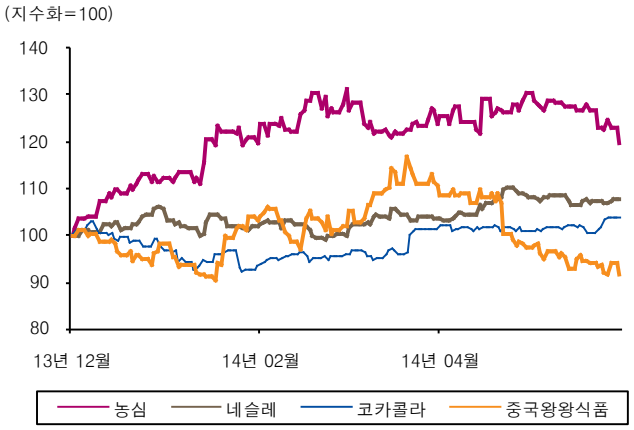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 P/B (배) | P/E (배) | ROE (%) | EPS 증가율 (%) | 1개월 수익률 (%) |
|---|---|---|---|---|---|
| 롯데쇼핑 | 0.6 | 10.5 | 5.3 | (0.6) | (6.1) |
| 월마트 | 3.0 | 14.6 | 20.7 | 1.3 | 0.2 |
| 코스트코 | 4.2 | 25.1 | 17.4 | 2.1 | 0.2 |
| 테스코 | 1.5 | 11.1 | 14.0 | (18.4) | (4.8) |

참고: 밸류에이션 및 EPS증가율은 2014년 추정치 기준

## 음식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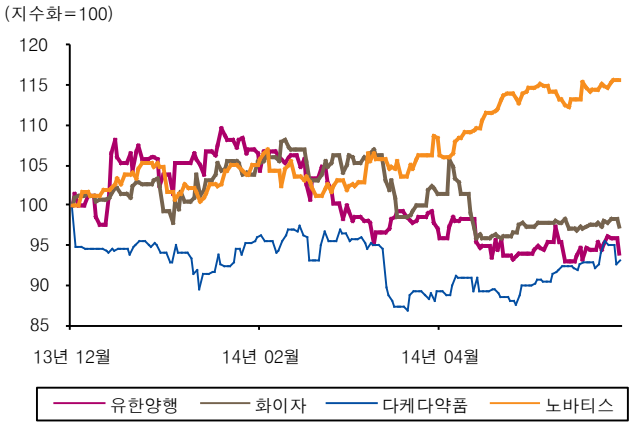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 P/B (배) | P/E (배) | ROE (%) | EPS 증가율 (%) | 1개월 수익률 (%) |
|---|---|---|---|---|---|
| 농심 | 1.1 | 16.6 | 6.8 | 12.5 | (9.1) |
| 네슬레 | 3.3 | 20.1 | 17.0 | 2.1 | 0.1 |
| 코카콜라 | 5.4 | 20.0 | 27.5 | 0.3 | 2.8 |
| 중국왕왕식품 | 7.7 | 22.6 | 36.0 | 11.5 | (6.6) |

참고: 밸류에이션 및 EPS증가율은 2014년 추정치 기준

## 제약




자료: Bloomberg

| | P/B (배) | P/E (배) | ROE (%) | EPS 증가율 (%) | 1개월 수익률 (%) |
|---|---|---|---|---|---|
| 유한양행 | 1.5 | 16.8 | 9.1 | 26.2 | 0.6 |
| 화이자 | 2.6 | 13.1 | 16.9 | 1.0 | (0.1) |
| 타케다약품 | 1.6 | 23.4 | 4.0 | 49.9 | 3.2 |
| 노바티스 | 2.9 | 17.2 | 15.0 | 3.9 | 0.7 |

참고: 밸류에이션 및 EPS증가율은 2014년 추정치 기준

**임은혜**
e0124.lim@samsung.com
02 2020 7027

# 수급 빅매치

## 기관/외국인 동시 순매수 Top-Pick

**한국전력(A015760)**

외국인 1일 연속 순매수, 기관 5일 연속 순매수

**삼천당제약(A000250)**

외국인 3일 연속 순매수, 기관 1일 연속 순매수

## 기관 순매수 Top-Pick

**SK텔레콤(A017670)**

기관 10일 연속 순매수

**코나아이(A052400)**

기관 3일 연속 순매수

## 외국인 순매수 Top-Pick

**KT(A030200)**

외국인 1일 연속 순매수

**테스(A095610)**

외국인 3일 연속 순매수

참고: 상기에서 제시한 종목들은 매수추천 의미가 아닌 뉴스와 수급을 중심으로 시장 특징종목을 나열한 것이며, 시간외대량매매 및 장외지분 변동 시 일부 자료에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주요 매매 종목

### 유가증권 시장

| 순매수 | (억원) | 순위 | 순매도 | (억원) |
|---|---|---|---|---|
| 현대차 | 263 | 1 | 아모레퍼시픽 | 169 |
| 삼성전자 | 234 | 2 | 기아차 | 124 |
| KB금융 | 219 | 3 | SK텔레콤 | 103 |
| 신한지주 | 149 | 4 | 현대모비스 | 100 |
| SK이노베이션 | 120 | 5 | 한국타이어 | 99 |
| 한국전력 | 103 | 6 | SK | 95 |
| KT | 79 | 7 | 우리금융 | 87 |
| BGF리테일 | 73 | 8 | OCI | 83 |
| SK하이닉스 | 57 | 9 | BS금융지주 | 78 |
| NAVER | 56 | 10 | 이마트 | 75 |

### 코스닥 시장

| 순매수 | (억원) | 순위 | 순매도 | (억원) |
|---|---|---|---|---|
| 게임빌 | 23 | 1 | 다음 | 97 |
| 파라다이스 | 17 | 2 | 컴투스 | 22 |
| 휴비츠 | 15 | 3 | 차바이오텍 | 21 |
| 서울반도체 | 14 | 4 | 에스엠 | 13 |
| 테스 | 14 | 5 | 리홈쿠첸 | 12 |
| 삼천리자전거 | 12 | 6 | GS홈쇼핑 | 11 |
| 메디톡스 | 11 | 7 | 인터파크 | 10 |
| 아프리카TV | 8 | 8 | 사파이어테크놀로지 | 10 |
| 블루콤 | 8 | 9 | 키이스트 | 10 |
| 솔브레인 | 8 | 10 | 위메이드 | 9 |

## 기관 주요 매매 종목

### 유가증권 시장

| 순매수 | (억원) | 순위 | 순매도 | (억원) |
|---|---|---|---|---|
| KODEX 레버리지 | 1338 | 1 | KODEX 인버스 | 380 |
| NAVER | 152 | 2 | 대우조선해양 | 100 |
| 아모레퍼시픽 | 126 | 3 | KB금융 | 56 |
| 삼성전자우 | 116 | 4 | 삼성SDI | 53 |
| SK하이닉스 | 115 | 5 | 한화케미칼 | 48 |
| 한국전력 | 111 | 6 | KT&G | 35 |
| LG디스플레이 | 94 | 7 | 하나금융지주 | 25 |
| LG화학 | 91 | 8 | 한국콜마 | 24 |
| SK텔레콤 | 91 | 9 | BGF리테일 | 21 |
| 현대모비스 | 90 | 10 | LG하우시스 | 21 |

### 코스닥 시장

| 순매수 | (억원) | 순위 | 순매도 | (억원) |
|---|---|---|---|---|
| 인터파크 | 48 | 1 | 에스엠 | 63 |
| 다음 | 13 | 2 | 서울반도체 | 45 |
| 포스코 ICT | 12 | 3 | CJ E&M | 28 |
| 미디어플렉스 | 12 | 4 | 와이솔 | 20 |
| CJ오쇼핑 | 10 | 5 | 블루콤 | 18 |
| 컴투스 | 9 | 6 | 파트론 | 16 |
| 삼천당제약 | 9 | 7 | SK브로드밴드 | 15 |
| 코나아이 | 8 | 8 | 성광벤드 | 14 |
| 위닉스 | 8 | 9 | SBS콘텐츠허브 | 13 |
| 서원인텍 | 7 | 10 | 모두투어 | 13 |

참고: 상기 자료는 17:00시 기준 자료로서 시간외대량매매의 발생 및 장외지분 변동 시 일부 자료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 Koscom

## 기관/외국인 동시 순매수 주요종목

### 유가증권 시장

| 기관기준 | (억원) | 순위 | 외국인기준 | (억원) |
|---|---|---|---|---|
| NAVER | 152 | 1 | 현대차 | 263 |
| SK하이닉스 | 115 | 2 | 삼성전자 | 234 |
| 한국전력 | 111 | 3 | SK이노베이션 | 120 |

### 코스닥 시장

| 기관기준 | (억원) | 순위 | 외국인기준 | (억원) |
|---|---|---|---|---|
| 포스코 ICT | 12 | 1 | 휴비츠 | 15 |
| 미디어플렉스 | 12 | 2 | 삼천리자전거 | 12 |
| 삼천당제약 | 9 | 3 | 아프리카TV | 8 |

참고: 상기 자료는 17:00시 기준 자료로서 시간외대량매매의 발생 및 장외지분 변동 시 일부 자료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 Koscom

**임은혜**
e0124.lim@samsung.com
02 2020 7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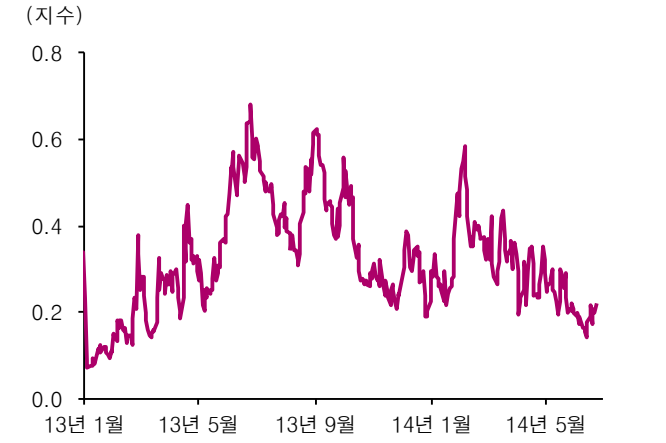
# Market Indicators

## 글로벌 철강금속 업종 강세

- 중국 6월 PMI가 50.8을 기록하며 비철금속 가격 상승 탄력 강화. 이에 따라 글로벌 철강금속 업종이 한주간 상위 수익률 기록

### Macro Indicator

**시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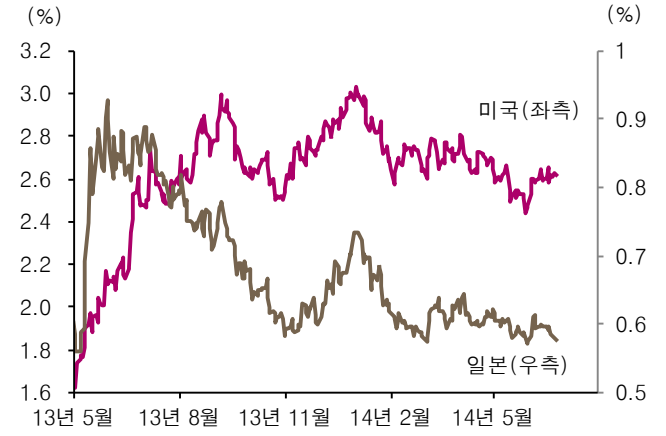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시티 매크로 서프라이즈 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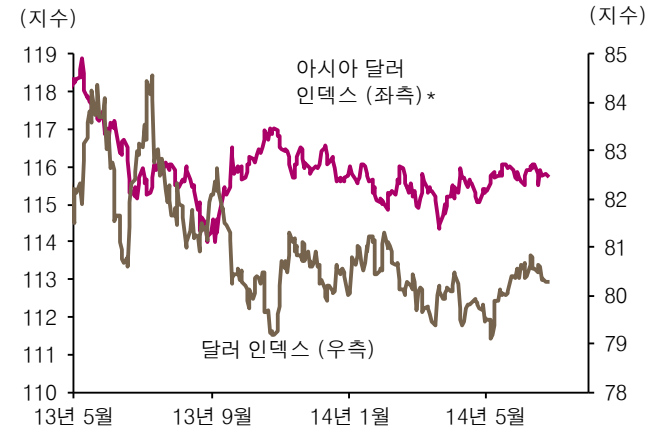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국/일본 국채 수익률 추이**




참조: 10년물 기준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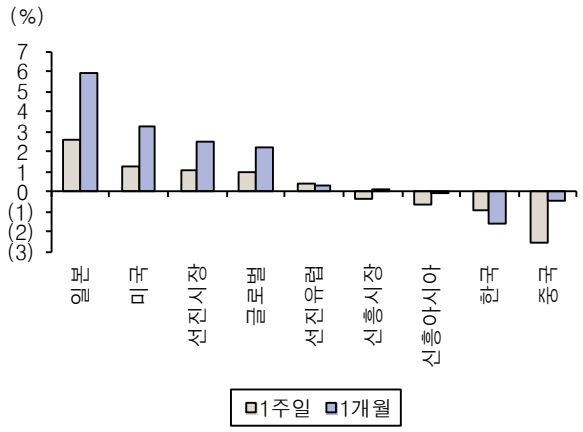
**달러 인덱스와 아시아 달러 인덱스 추이**




참조: * 미국 달러화에 대한 아시아 10개국 통화 가치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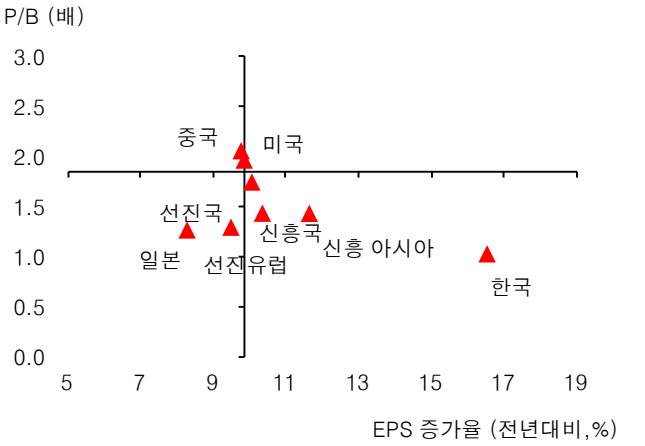
## 글로벌 증시 동향

### MSCI 지역별 증시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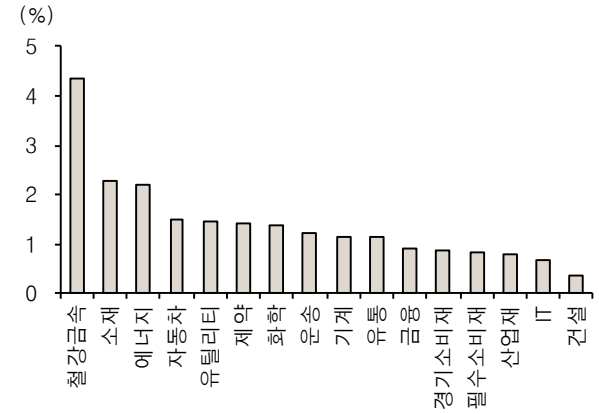

참고: 6월 16일 ~ 6월 23일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 MSCI 지역별 12개월 선행 기준 예상 EPS 증가율 및 P/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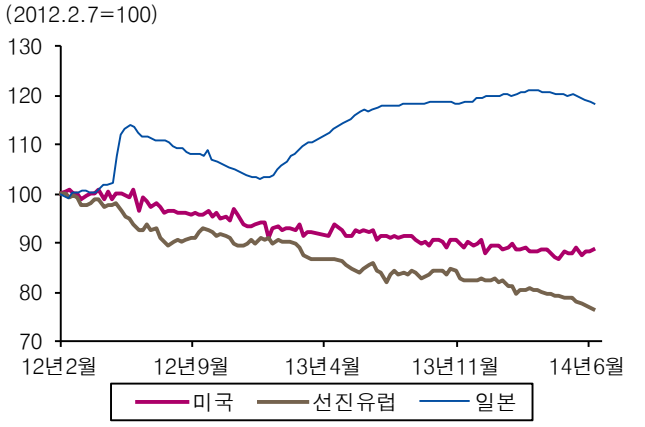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 MSCI 선진시장 섹터별 주간 증시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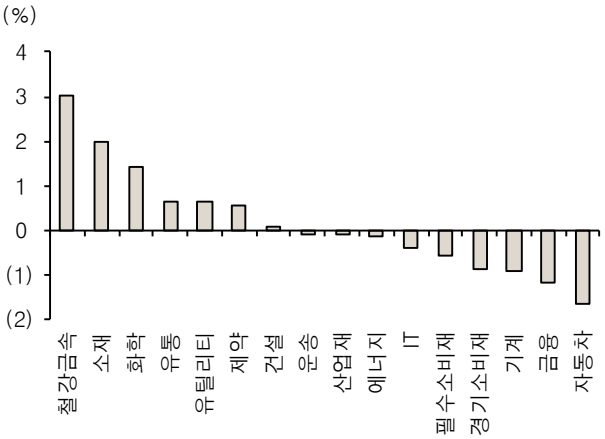

참고: 6월 16일 ~ 6월 23일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 MSCI 선진시장 주요 국가별 2014년 예상 EP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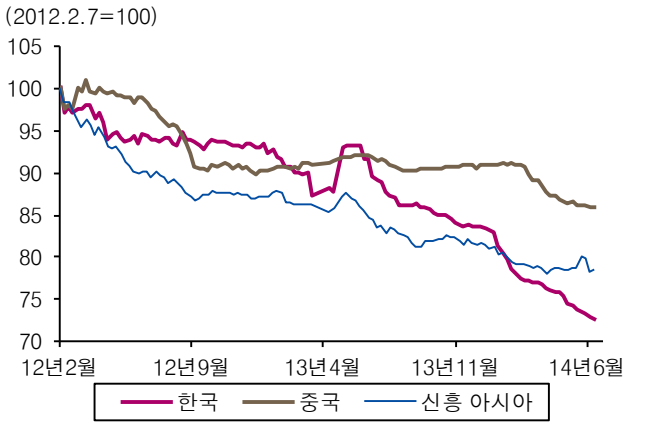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 MSCI 신흥시장 섹터별 주간 증시 성과




참고: 6월 16일 ~ 6월 23일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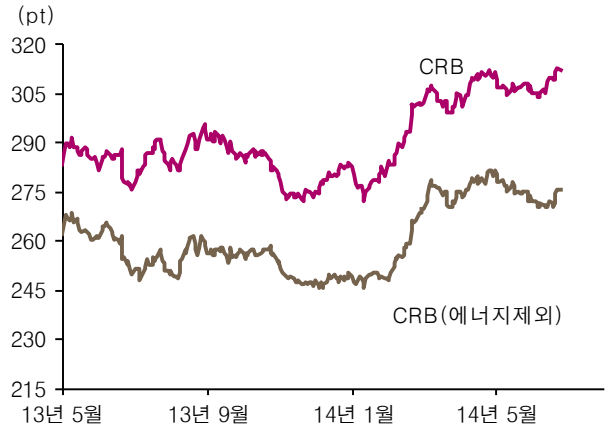
### MSCI 신흥시장 주요 국가별 2014년 예상 EPS 추이




자료: Thomson Reu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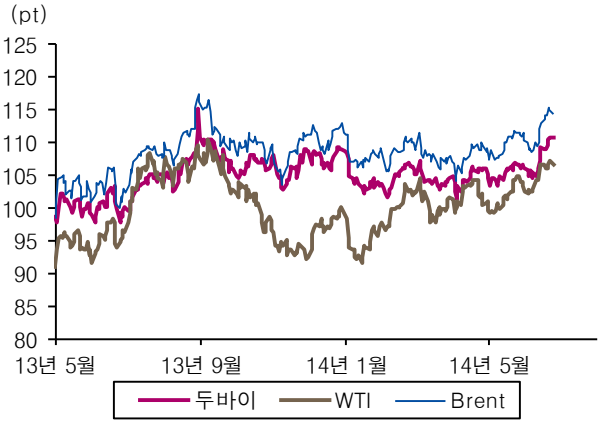
## 상품 및 산업 Indicators

### TR/Jefferies CRB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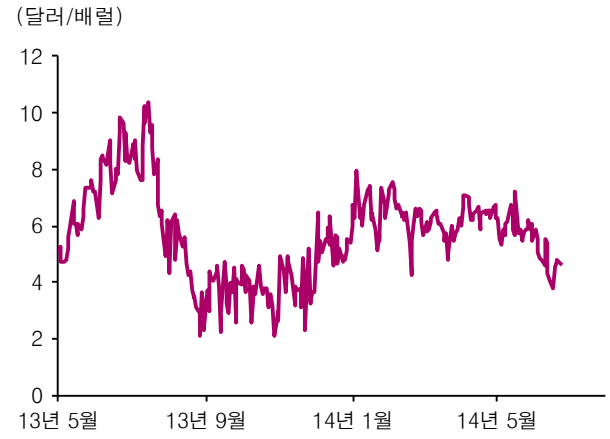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주: CRB(농산물+에너지+비철금속)

### 국제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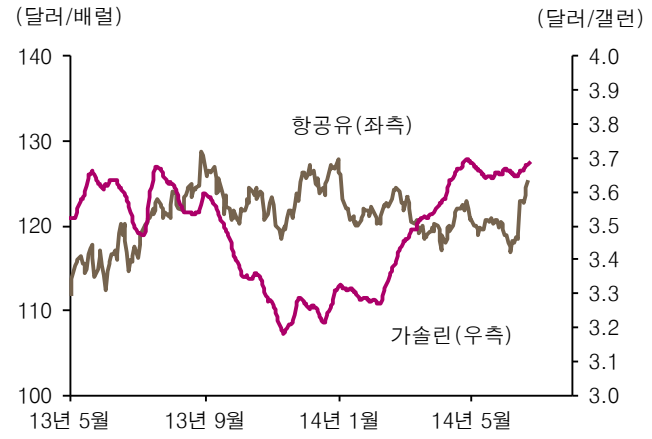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 싱가포르 정제마진




자료: Thomson Reuters

### 항공유 & 가솔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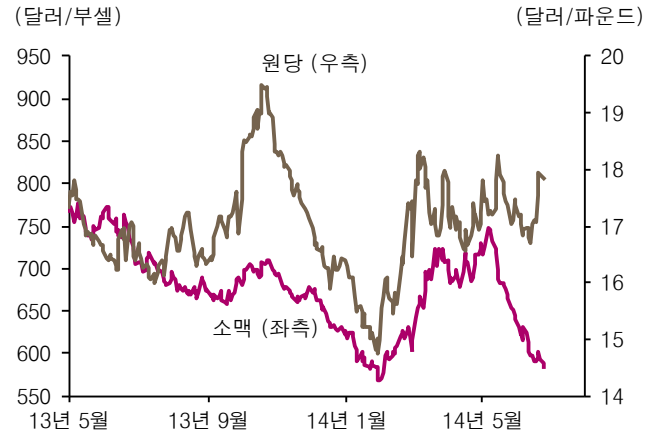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대두 & 옥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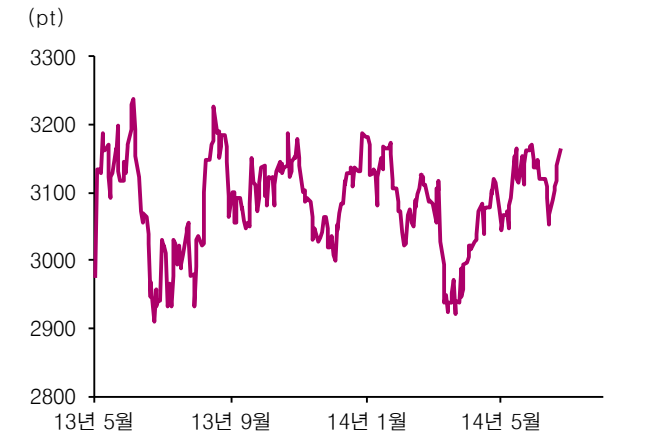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 소맥 & 원당




자료: Thomson Reuters

### LME(비철금속)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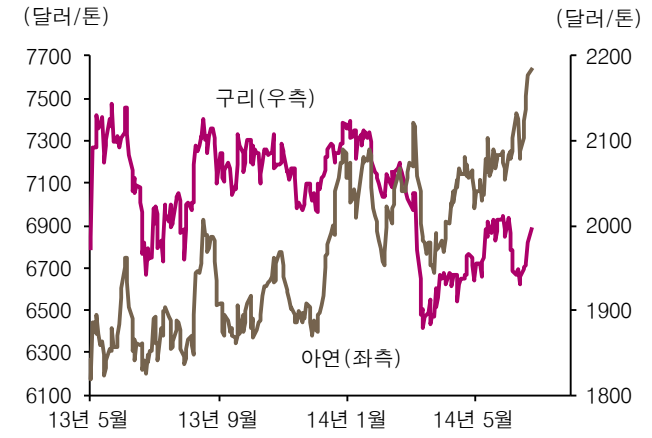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 귀금속 가격

자료: Thomson Reuters

### 비철금속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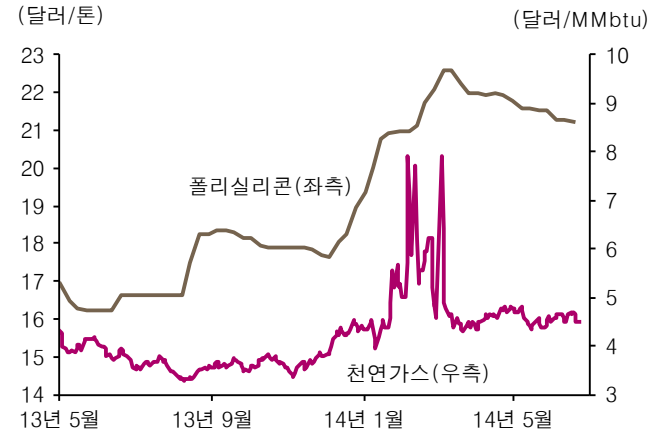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 철강 유통가격

자료: Bloomberg

### 폴리실리콘 & 천연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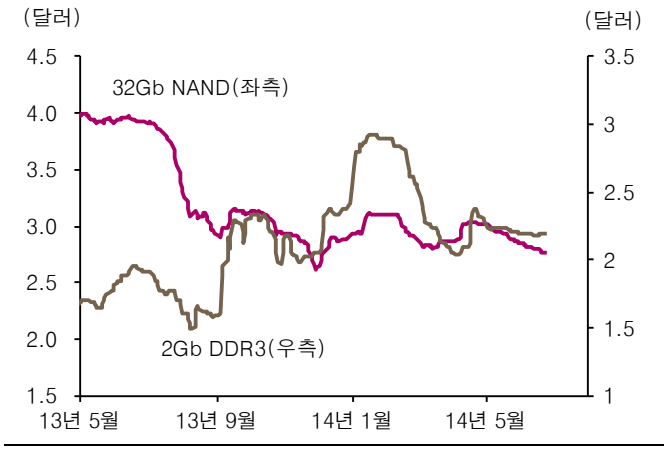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PVinsights

### 석탄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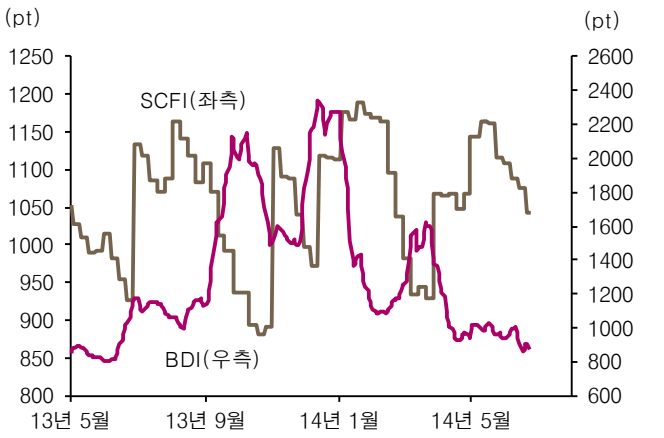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DRAM & NAND 현물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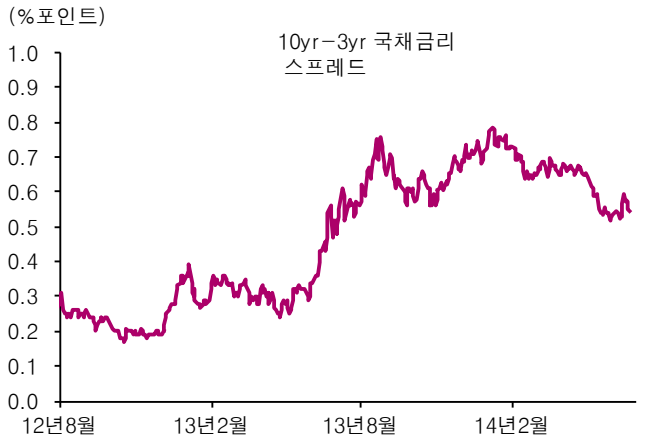

자료: DRAMeXchange

### 해상운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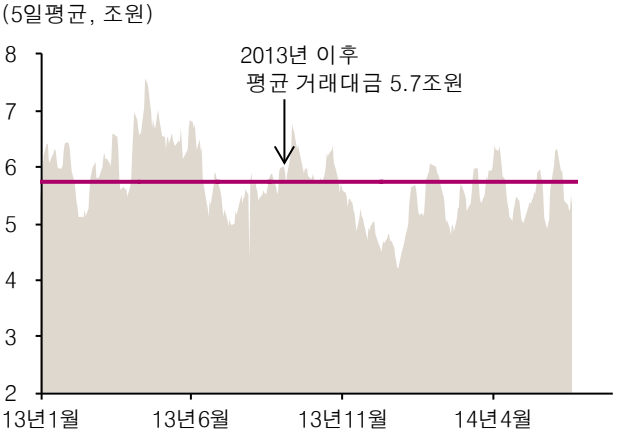

자료: 상하이항운교역소, Thomson Reuters

### 한국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 KOSPI & KOSDAQ 거래대금




자료: KRX

**임은혜**
e0124.lim@samsung.com
02 2020 7027

# 증시 캘린더

| MON | TUE | WED | THU | FRI |
|---|---|---|---|---|
| 6/23 | 24 | 25 | 26 | 27 |
| (미국)<br>6월 마킷 제조업PMI<br>(6월 57.5/E 56.0/P 56.4)<br>5월 기존주택매매(전월대비)<br>(5월 4.9%/E 1.9%/P 1.5%)<br><br>(중국)<br>6월 HSBC제조업 PMI<br>(6월 50.8/E 49.7/P 49.4)<br><br>(유럽)<br>6월 마켓 제조업PMI<br>(6월 51.9/E 52.1/P 52.2)<br>6월 마켓 종합PMI<br>(6월 52.8/E 53.5/P 53.5) | (미국)<br>4월 FHFA주택가격지수(전월대비)<br>(4월 -/E 0.5%/P 0.7%)<br>6월 소비자기대지수<br>(6월 -/E 83.5/P 83.0)<br>5월 신규주택매매(천건)<br>(5월 -/E 439/P 433) | (미국)<br>주간 MBA주택융자신청지수(전주대비)<br>(6월3주 -/E -/P -9.2%)<br>5월 내구재주문(전월대비)<br>(5월 -/E -0.3%/P 0.6%)<br>1분기 GDP(연율, 전분기대비)<br>(1분기 -/E -1.8%/P -1.0%)<br>1분기 개인소비(전분기대비)<br>(1분기 -/E 2.5%/P 3.1%)<br>1분기 GDP물가지수(전분기대비)<br>(1분기 -/E 1.2%/P 1.3%) | (미국)<br>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천건)<br>(6월3주 -/E 310/P 312)<br>5월 개인소득(전월대비)<br>(5월 -/E 0.4%/P 0.3%)<br>5월 개인소비지수(전월대비)<br>(5월 -/E 0.4%/P -0.1%)<br><br>(한국)<br>5월 백화점매출<br>(5월 -/E -/P -4.1%)<br>5월 할인점매출<br>(5월 -/E -/P -1.4%) | (한국)<br>5월 경상수지(백만달러)<br>(5월 -/E -/P 7124.7)<br>5월 상품수지(백만달러)<br>(5월 -/E -/P 10648)<br>5월 산업생산(전월대비)<br>(5월 -/E -0.1%/P 0.1%)<br>5월 광공업생산(전년대비)<br>(5월 -/E 1.0%/P 2.4%)<br><br>(유럽)<br>6월 경기기대지수<br>(6월 -/E 103.0/P 102.7)<br><br>(일본)<br>5월 전국소비자물가지수(전년대비)<br>(5월 -/E 3.7%/P 3.4%) |
| 30 | 7/1 | 2 | 3 | 4 |
| 美 5월 미결주택매매<br>유 5월 M3 통화공급<br>6월 소비자물가지수<br>韓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 | 美 6월 ISM제조업지수<br>5월 건설지출<br>유 5월 실업률<br>韓 6월 소비자물가지수<br>6월 수출 · 수입<br>6월 HSBC 한국제조업 PMI<br>中 6월 제조업 PMI<br>6월 HSBC 제조업 PMI<br><br>***증시휴장 - 홍콩** | 美 주간 MBA주택융자신청지수<br>6월 ADP취업자 변동<br>5월 제조업수주<br>유 5월 생산자물가지수 |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br>5월 무역수지<br>6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변동<br>6월 실업률<br>6월 ISM비제조업지수<br>유 5월 소매판매<br>7월 ECB통화정책회의 | ***증시휴장 - 미국** |
| 7 | 8 | 9 | 10 | 11 |
| | | 美 주간 MBA주택융자신청지수<br>6월 FOMC 의사록 공개<br>中 6월 소비자물가지수<br>6월 생산자물가지수 |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br>韓 7월 한국은행 통화정책회의<br>7월 옵션만기일<br>中 6월 무역수지 · 수출 · 수입<br>6월 통화공급 M2 | 美 6월 월간 재정수지 |

자료) Bloomberg
참고) 韓: 한국, 美: 미국, 유: 유로존, 中: 중국, 日: 일본, 독: 독일, 영: 영국 / 현지시간 기준

# 해외주식 바로 알기

## 해외주식 매매 프로세스

| 프로세스 | 내용 |
|---|---|
| 해외주식 약정 등록 | • 삼성증권 종합계좌에 해외주식 약정 등록 |
| 입금 / 환전 | • 원화 입금의 경우 거래국가 통화로 환전<br>• 환전 가능시간: 09:00 ~ 16:00 (공휴일 불가)<br>※ 외화 입금시 환전 필요없음<br>(단, 외화 현금 지점 수납은 불가) |
| 주문 (매수 / 매도) | • 온라인 매매 가능국가: 미국 • 홍콩 • 일본<br>• 유럽 및 기타국가: 오프라인 주문만 가능 |
| 환전 / 출금 | • 원화 입금시 원화 출금, 외화 입금시 외화출금 원칙 |
| 양도세 신고 | • 매도한 해의 다음년도 5 월에 자진신고<br>(ex. 2013 년 매도시 2014 년 5 월에 신고)<br>• 250 만원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22%<br>(주민세 포함) 양도소득세 부과 |

거래국가의 통화로 환전을 한다는 점과 양도소득세 신고를 제외하면 해외주식이 국내주식과 다른 점은 없다. 삼성증권에서는 환전 가능시간(오전 09:00~오후 4:00)에 전화나 HT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쉽고 간단하게 환전 가능하며, 환전 이후 주문 역시 논스탑으로 가능하다.

해당국가의 통화로 직접 입금했을 경우에는 환전 절차가 필요 없이 바로 매매가 가능하다. 다만, 외화입금의 경우 매매가 끝난 이후 출금 역시 외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삼성증권에서는 원화 입금시에는 원화 출금, 외화 입금시에는 외화 출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주식전략팀이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250번지 삼성본관빌딩 14층 주식전략팀 02-2020-8000